

순천로컬푸드, 지속 가능 먹거리 플랫폼 자리매김

시민 주주·농가 일군 10년, 누적 매출 1006억원 결실 지역 농수축산 소비 확대...농가 4배·품목 10배 성장

순천로컬푸드가 오픈 10주년을 맞아 지역 농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순천형 먹거리 선순환 모델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2016년 3월 출범한 순천로컬푸드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지역 먹거리 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단순한 농산물 판매장을 넘어 농가, 소비자, 시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 먹

거리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간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직매장, 온라인몰, 외식사업을 연계한 시민 생활 속 먹거리 플랫폼으로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순천로컬푸드의 10년은 지역 농가와 시민이 함께 만든 성장의 시간이었다. 순천시는 로컬푸드 시민공감 활동과 생산자 조직화, 시민 주주 참여를 바탕으로 순천로컬푸드를 설립했다. 현재 순천로컬푸드는 총 1092명의 시민 주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시민 주주 구조를 통해 지역 먹거리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순천형 로컬푸드



2016년 5월 순천로컬푸드 1호점인 순천만국가정원점 개장식 모습.

사진제공=순천시청

모델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순천로컬푸드는 2016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누적 매출 1006억원을 달성했고, 총 매출의 86%는 농가에 환원돼

지역 농업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농가의 참여 기반도 넓어졌다. 월 1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2017년 50농가에서 2025년 199농가로 4배 늘었고,

출하품목도 320개에서 3192개로 약 10배 확대됐다.

순천로컬푸드는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공간으로 성장했다. 순천만국가정원점 개장을 시작으로 조례호수공원점, 신대점까지 직매장을 확대하고, 온라인몰 '함께가게'를 운영하며 시민 접근성과 소비 기반을 넓혔다. 현재 직매장 등록 회원은 4만명으로 순천시 세대수의 31% 수준이며, 온라인몰 회원도 1만명에 이른다.

여미라 레스토랑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지역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며 로컬푸드의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순천로컬푸드는 농산물 판매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적 역할도 확대해 왔다. 지역통합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를 함께 늘리는 먹거리 복지 모델을 실천해 왔다.

또 어르신 식사 지원과 문화활동, 여성친화 일자리 환경 조성, 대학과 연계한 현장실습 및 인턴 양성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로컬푸드의 10년은 농가와 시민, 행정이 함께 만들어 온 지역 먹거리 선순환의 역사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시민에게는 안전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순천형 로컬푸드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순천 청춘창고서 루미동이 만나요! 순천시가 청년 창업·문화복합공간인 청춘창고에 캐릭터 루미동이 팝업스토어 '룰루마트'를 최근 오픈했다. 평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루미동이의 개성과 매력을 담은 다양한 굿즈를 선보인다. 사진제공=순천시청

보성, 자원봉사단체 역량 강화 추진

보조금 투명 운영·자원봉사 활성화 나서

보성군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자원봉사활동 보조금 지원단체 회상 등 관계자 18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보조금 집행·정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성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15개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투명 집행 및 체계적인 정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 활동보조금은 보성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5개 단체(우수 프로그램 2개, 직능·기능 분야 2개, 전문 자원봉사단 11개)에 2155만원

을 지원했다.

이런 교육은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자원봉사단체 활동 준수사항,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와 보조금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소중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통해 건강한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여수, 민선 9기 기획위원회 주요 현안·업무계획 점검

서영학 시장 당선인 인수위,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 모색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민선 9기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는 최근 여수시청 전반 현안파악과 시장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했다.

기획위원회는 이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세계시바람회 위기대응체계 점검과 성공 개화를 위한 교통과 기반시설, 전신체 협프로그램, 보건안전대책 등 제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심바람회지원단과 조직 위,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또 시민의 행정참여 방안, 생활민원의 체계적 해결, AI 행정체계 수립, 정부의 공공행정기관 이동을 위한 실효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러 산업·고용위기 대응 추진방향과 통합특별시와 연계 정책방안 강구, 시민 소득배당 및 미래첨단산업 유치와 연계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추진 방안,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연계된 산업경제 대책 등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17일까지 10개 실과 함께 업무 보고회를 통해 각 분야에 따른 민선 9기의 시장 방향을 구상한다.

이러 18~25일에는 노동계, 소상공인, 시민사회, 여수사건 유족회, 기업 경영인, 시장상인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민선 9기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가 여수시청 전반 현안 파악과 시장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한다. 사진제공=민선 9기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지역 현안을 정확히 정책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간담회 신청·의견 제출은 이메일(yeosu@vision@gmail.com), 기획위원회

사무실(진남스포츠크터 3층) 방문, 전화(061-659-2231) 또는 소통폰(010-3938-1552)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곡성군-지역자활센터, 이동점빵 운영

3000만원 투입...기본소득 사용 촉진

곡성군과 곡성지역자활센터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을 촉진하고 자활 참여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면 매월마을을 시작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점빵'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사업비 3000만원으로 추진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내 생활필수품 구매가 어려운 이른바 '식품 사막' 문제를 완화하고, 자활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동점빵은 라면, 휴지, 세제 등 생활필수품과 두부, 우유, 과일 등 신선식품을 차량에 싣고 곡성군 전역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행복발

래방과 연계된 마을을 방문하고, 목요일에는 희망복지 이동서비스가 운영되는 마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의 생활 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춘 생활물품 공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내 사용을 유도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동점빵은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며 "자활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사업단이 향후 자활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광양대전환위원회, 민선 9기 청사진 마련 본격화

박성현 당선인 "시 재정 상황 공개" 주문

민선 9기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인 '광양대전환위원회'가 시장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민선 9기 시장 청사진 마련에 본격 나섰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상황스포츠크터2층에서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소·실장들로부터 주요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회는 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 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실·국·별 주요 현안과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인수위원들의 세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운영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민선 9기 시장 운영 방향과 당선인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위원회는 현재 광양시가 직면한 재정 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박성현 당선인은 시의 재정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며 "현재 광양시가 처한 재정 상황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gwangnam.co.kr

고흥,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기술 컨설팅

고흥군이 샤인머스켓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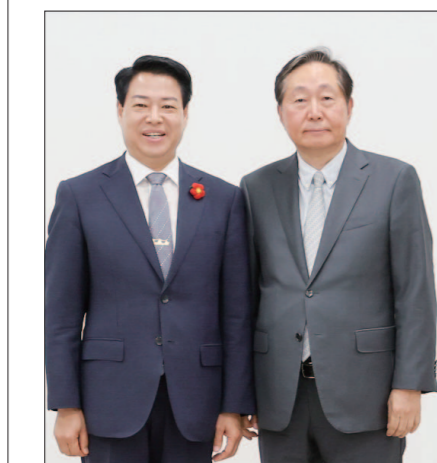
군은 최근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서 재배면적 감소와 품질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흥농업기술센터 포도연구회원 24명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소비자 선호 변화와 산간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샤인머스켓 재배농가의 품질 향상과 안정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작과기 생육관리와 수세관리, 주요 병해충 방제, 봉지씌우기 요령 등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재배기술 중심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하반기에도 한우, 딸기, 샤인머스켓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재배기술 교육과 선도농가 중심의 기술 확산을 통해 농가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민선 9기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인 '광양대전환위원회'는 16일 상황스포츠크터 2층에서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왼쪽)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소·실장들로부터 주요 현안 보고를 받았다.